

【해외동향】

주요 국가별 에너지원 인식조사 결과

‘20.09.25(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미국) 태양광(84%)·풍력(77%) 선호도 높고, 석탄(24%)·원자력(29%) 낮아

※ 美 여론조사업체 Morning Consult, 2,200명 성인 대상 조사(‘20.8.24~27)(<https://bit.ly/3iB8730>)

- 에너지원별 선호도는 태양광(84%)·풍력(77%) 등 재생에너지가 가장 높았고, 원자력(29%)과 석탄(24%)은 선호도가 낮음

에너지원	선호	비선호
태양광	84%	8%
풍력	77%	12%
천연가스	67%	20%
수력	50%	12%
원자력	29%	49%
석탄	24%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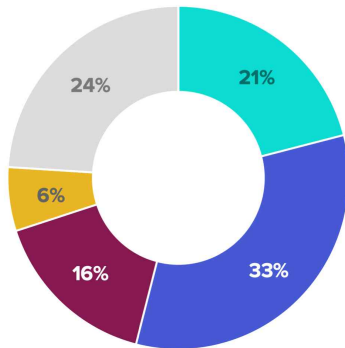
-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응답자들의 원자력 선호도(선호 27%, 비선호 55%)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 ‘가정이나 건물의 전력공급업체에 희망하는 에너지원을 지정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태양광이 4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뒤이어 천연가스(18%), 풍력(10%), 원자력(4%), 수력(3%), 석탄(1%) 순으로 나타남(상관없음 19%)
- ‘원전에 대한 의견 중 자신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는 ‘현 원전 유지·신규 건설 반대’ 의견이 가장 많은 33%를 차지, 뒤이어 ‘원전 전면 철폐(21%),’ ‘원전 유지·신규 건설 찬성(16%),’ ‘원전 유지 및 신규 건설에 더해 해외 진출 촉진 또한 필요(6%)’ 순
- 원전 증가에 찬성하는 69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거리에 따른 핵 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마일(32km) 이내부터는 절반 이상이 반대

거주지와 핵폐기물 저장시설 간 거리	지지	반대	모름/의견없음
5마일(8km)	25%	64%	11%
20마일(32km)	31%	58%	11%
50마일(80km)	47%	43%	12%
75마일(120km)	51%	36%	13%
100마일(160km)	63%	24%	12%

1 in 3 Adults Believe U.S. Should Retain Current Nuclear Plants, Build No More

Share of adults who believe that the U.S. should...

- Not generate electricity from nuclear energy at all
- Use existing nuclear plants, but not build new reactors
- Use existing nuclear plants and build new reactors
- Use existing nuclear plants, build new reactors and promote nuclear energy programs abroad
- Don't know/No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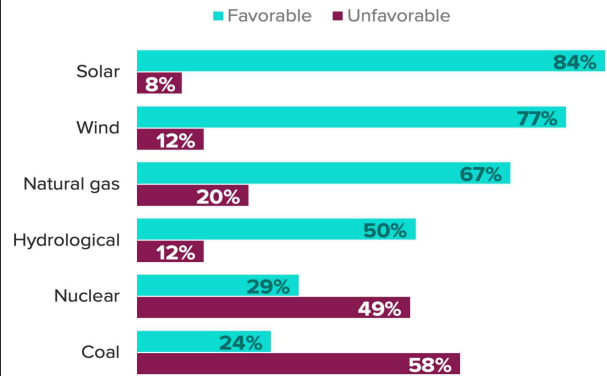


△원전에 대한 입장
(성인 3명 중 1명이 현 원전 유지·신규 건설 반대)

Roughly Half of the Public Views Nuclear, Coal Power Unfavorably

The unfavorable rate for the two electricity sources is far higher than renewables, gas

Share of adults who regard various electricity sources favorably and unfavorab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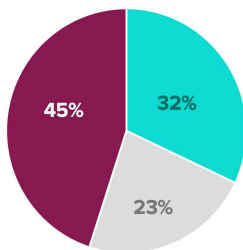


△에너지원별 선호도
(절반 가량이 원자력·석탄 선호하지 않음)

Most Nuclear Energy Supporters Would Oppose Waste Storage Within 20 Miles of Their Own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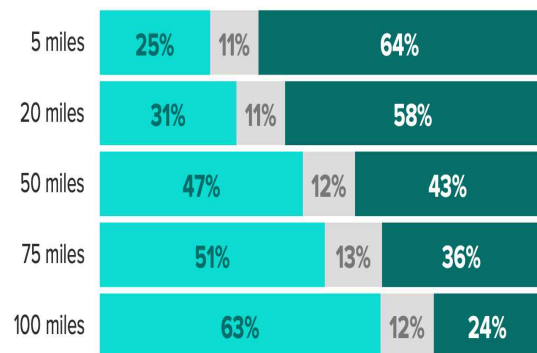
Respondents were asked whether they support or oppose increasing the number of U.S. nuclear power facilities

- Support
- Don't know/No opinion
- Oppose



Among supporters, the share who support or oppose storing spent fuel within the following distances of their own community:

- Support
- Don't know/No opinion
- Oppose



△대부분(45%)의 원전 지지자들은
거주지 20마일 반경 내 핵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반대

□ (영국) 태양광(선호도 86% 확대 필요 76%) 선두로 재생에너지 선호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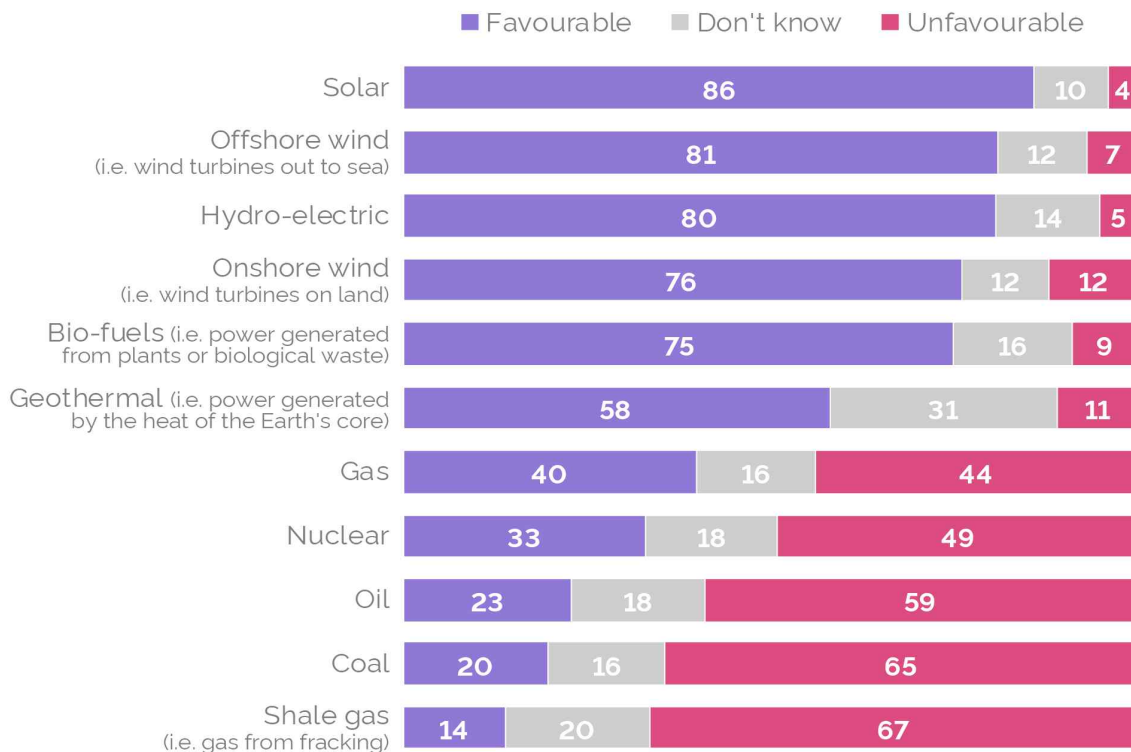
※ 英 여론조사업체 YOUGov, 1,662명 성인 대상 설문조사('19.8.26~27) 결과(<https://bit.ly/2HoQSnX>)

○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대중 선호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남

에너지원	선호	비선호	모름
태양광	86%	4%	10%
해상풍력	81%	7%	12%
수력	80%	5%	14%
육상풍력	76%	12%	12%
바이오에너지	75%	9%	16%
지열	58%	11%	31%
가스	40%	44%	16%
원자력	33%	49%	18%
석유	23%	59%	18%
석탄	20%	65%	16%
셰일가스	14%	67%	20%

- 원자력(33%)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인 가스(40%)보다도 더 낮은 선호도를 보임
- 지열은 절반 이상(58%)이 선호했으나, '모름' 응답 비율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31%에 달함

Do you have a favourable or unfavourable view of each of the following types of electricity generation? %



△각 에너지원별 선호도에 대한 응답(선호도 높은 순)

- 태양광(76%)·해상풍력(68%)·수력(62%)·바이오에너지(61%)·육상풍력(58%)은 현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원자력은 축소(42%) 의견이 가장 많고 유지(24%), 모름(19%), 확대(15%) 순으로 나타남. 셰일 가스·석탄·석유는 축소 의견이 각각 63%, 65%, 59%로 절반 이상

에너지원	확대	유지	축소	모름
태양광	76%	10%	2%	12%
해상풍력	68%	15%	4%	14%
수력	62%	19%	2%	17%
바이오에너지	61%	17%	5%	17%
육상풍력	58%	21%	7%	13%
지열	46%	17%	8%	30%
원자력	15%	24%	42%	19%
셰일가스	8%	9%	63%	21%
석탄	5%	14%	65%	16%
가스	5%	31%	47%	17%
석유	3%	21%	59%	17%

□ (호주) 국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태양광·풍력·수력이 선두

※ 국영 방송사 ABC·Vox Pop Lab, 54,000명 대상 설문조사('19.7월) 결과(<https://ab.co/3629m85>)

- 더욱 확대해야 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83%), 풍력(68%), 수력(62%), 원자력(34%), 가스(19%), 석탄(12%), 석유(3%) 순
 - 대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호주 재생에너지 비중은 6%밖에 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97%가 석유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감소함에 따라 석유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일본) 미래 에너지원으로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선호, 60% 이상이 원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점진적으로 중단 49.4%, 즉시 중단 11.2%)

※ 日 원자력문화진흥재단(JAERO), 15-79세 1,200명 대상 설문조사('19.10월) 결과(<https://bit.ly/2EyCcSk>)

- 앞으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75.5%), 풍력(62.8%), 수력(51.8%), 지열(40%)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원자력은 16.3%에 그침
- '일본에서 앞으로 원자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점진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49.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모름(22.7%), 즉시 중단해야 한다(11.2%), 동일본 대지진 이전 상태 유지(9.3%), 증가(2%) 순으로 나타남(기타(0.8%), 보기에 없음(4.7%))